



유일에너지테크 “공모가 16,000원 확정” 공모밴드 초과

- ▶ 1,499개 기관 참여, 경쟁률 1,427.69대 1...수요예측 흥행 성공
- ▶ 15일~16일 청약 거쳐 2월 25일 코스닥 입성

<2021-02-09> 유일에너지테크가 뜨거운 열기 속에 수요예측을 마무리했다.

2차전지 노칭, 스택킹 장비 No.1 기업 유일에너지테크(대표이사 정연길)는 지난 4일, 5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밴드(11,000원~14,000원)를 초과한 16,000원에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요 예측에는 1,499개 기관이 참여, 2,672,315,000주를 신청해 단순경쟁률 1,427.69대 1을 기록했다. 공모금액은 386억원, 시가총액은 1,69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유일에너지테크 상장을 주관하는 신영증권 관계자는 “신청물량의 100%가 밴드상단 이상을 제시했고, 이 중 98%가 확정공모가인 16,000원 이상을 제시했다. 의무보유 청약비율은 23%로 2021년 청약진행 종목 중 가장 높았다” 며 “대부분의 투자자는 유일에너지테크의 2차전지 핵심 장비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경쟁력과 원천기술기반 성장동력 다변화에 프리미엄을 부여했다” 고 전했다.

실제로 유일에너지테크는 기존 파우치형 배터리 노칭장비 중심의 단일화된 캐시카우를 각형 배터리를 투롤(R2R) 노칭 장비, 파우치형 배터리 스택킹 장비, 5G 스마트폰용 소형 배터리 장비, 수소연료 전지 제조장비 등 신 성장엔진 4가지를 추가해 미래 성장동력을 장착했다. 특히 이들 신규 캐시카우들이 새롭게 개발 중인 상태가 아니라 이미 개발 완료되어 고객사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로 양산장비까지 상용화되어 매출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가파른 성장성을 예고하고 있다.

공모로 확보된 자금은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CAPA(약 700억원) 대비 약 4배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며, 차세대 혁신제품을 출시를 지속하여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일에너지테크 정연길 대표이사는 “당사의 기업 가치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상장 시점에서의 일시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으로도 투자하고 싶은 기업으로 자리잡고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독보적인 혁신 기술개발과 신뢰 있는 경영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장비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일에너지테크는 오는 15일~16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거쳐 2월 25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계획이다. 대표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

<참고자료>

[유일에너지테크 IPO 일정]

증권신고서 제출	2021년 1월 13일
수요예측	2021년 2월 4일 ~ 5일
청약	2021년 2월 15일 ~ 16일
코스닥 상장	2021년 2월 25일
공모주식 수	2,415,200주 (신주: 1,718,150주/구주: 697,050주)
확정 공모가	16,000원
확정 공모금액	386억 원

☎ 자료문의: (주)유일에너지테크 박충원 이사 (070-7708-8862)

(주)IR큐더스 한정선 이사(02-6011-2000 #120) 안재희 선임 (02-6011-2000 #213)